

2세대 보이그룹, 올해 대거 컴백... '완전체 활동' 기대

군 복무 등으로 인해 완전체 활동 뜸해... 대다수 멤버들 전역 동방신기, 아카펠라 그룹 표방... 라이브서 탁월한 기량 발휘 빅뱅, 자작곡 실력·프로듀싱 능력 갖춘 아이돌 그룹 시대 열려

동방신기·빅뱅·슈퍼주니어·샤이니·2PM·하이라이트(옛 비스트)·인피니트... '2세대 남성 아이돌'이 올해 대거 돌아온다. 특히 상당수 팀들의 '완전체 활동'이 기대된다. 방탄소년단(BTS)을 선봉으로 엑소, 세븐틴, 갯세븐 등 3세대 아이돌이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밑바탕을 깔아준 이들이다. 최근 몇 년간 군 복무 등으로 인해 완전체 활동이 뜸했다. 대다수 팀의 멤버들이 속속 전역하면서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세대 아이돌, 한류 주춧돌... 실력과 외모 겸비

H.O.T와 젝스키스 같은 1세대 아이돌은 국내 팬덤 문화를 만들었다. 동방신기를 시작으로 2세대 아이돌들은 아시아 각지로 한류를 퍼트렸다. 2000년대 초중반에 데뷔해 K팝 한류 붐을 조성했다. 무엇보다 확고한 팬덤 덕에 생명력이 길다. '80만 대군 카시오페아(팬덤명)'라는 수식을 달고 다닐 정도였던 동방신기는 18주년을 맞았다. 빅뱅이 데뷔 15주년, 슈퍼주니어는 데뷔

16주년이다. 2세대 막내 격인 인피니트도 올해 데뷔 11주년이다. 윈디걸스, 카라 등 동세대에 활동한 2세대 걸그룹이 이미 해체한 걸 감안하면, 보이그룹의 생명력은 길다. 2세대 보이그룹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외모·스타일뿐 아니라 실력 겸비다. 1세대 아이돌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때는 '립싱크 시대'다. 1990년대 후반부터 립싱크를 기반으로 한 댄스 가수들 무대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고, 2000년대부터 실력을 갖춘 아이돌들이 대거 등장한다. 대표적인 예가 동방신기다. 5인조 데뷔 초창기 아카펠라 그룹을 표방한 동방신기는 라이브에서 탁월한 기량을 발휘했다. 일본의 작은 무대에서부터 차곡차곡 실력을 쌓은 덕이다. 빅뱅을 통해서 자작곡 실력과 프로듀싱 능력을 갖춘 아이돌 그룹의 시대가 열렸다. 특히 지드래곤은 프로듀싱 능력과 함께 화려한 스타일로 단숨에 아이콘으로 부상했다. 여기에 다재다능한 끼를 갖춘 슈퍼주니어 같은 팀이 가세하면서 2세대 아이돌의 생명력이 길어졌다. 온전한 팀 활동만 추구했던 1세대 달리 솔로 병행을 활발하게 한 점도 2세대 아이돌의 장수 비결 중 하나다.



30대, 올해 또 다른 전환점... 젊은 세대 관심도

2020년대의 시작인 올해는 2세대 보이그룹들의 활동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역 이후 상당수 멤버들이 30대로 접어들었고, 결혼 등으로 인해 가정도 꾸리면서 삶 자체에서 변곡점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올해 2세대 아이돌 활동의 신호탄은 동방신기 유노윤호다. 오는 18일 두 번째 솔로 미니 앨범 '뉴아르'를 발매한다. 국내에서 팀 활동은 지난 2018년 말 15주년 스페셜 앨범을 발매한 이후 뜸한데, 올해 안에 팀 신곡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가장 기대를 모으는 건 빅뱅이다. 2018년 3월 '꽃길' 이후 멤버들이 군 복무를 하면서 완전체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애초 빅뱅은 지난해 미국 대형 대중음악 축제인 '코첼라 뮤직 앤드 아트 페스티벌'을 통해 완전체로 컴백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19 여파로 무산됐다. 올해 어떤 형태로든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또 4인조로 재편한 뒤 처음 하는 활동이기도 하다. 유닛 등을 통해 꾸준히 활동해온 슈퍼주니어는 오는 2월 대망의 10집을 발매한다. 샤이니와 하이라이트도 올해 안에 완전체 컴백을 예고했다. 오는 3월 준호가 소집해제되면, 멤버들이 모두 군 복무를 마치게 되는 2PM도 '완전체'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이런 흐름에 기존 골수팬들만 반가워하지 않는다. 새로 유입된 10대 위주의 젊은 팬들도 기대가 높다.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음악을 주로 접하는 젊은 세대는 알고리즘을 통해 방탄소년단, 엑소 등에 앞선 걸음을 한 2세대 아이돌 영상을

추천한다. 이를 통해 동방신기, 2PM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다. 유명세는 덜했지만, 나름의 매력을 갖고 있었던 2세대 아이돌 보이그룹들도 재발견되는 추세다. 재제가 진행되는 유튜브 채널 '문명특급'의 코너 '숨어서 듣는 명곡(숨듣명)'이 곡을 발굴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틴탑의 '향수 뿌리 지마', 유키스의 '만만하니'가 대표적인 사례다. 여러 채널을 통해 제작의 아이돌들의 '후유증' 역시 재조명됐다. 중견 아이돌 기획사 관계자는 "2세대 아이돌 그룹이 잇따라 론칭되는 시기는, K팝이 국내에서 산업적으로도 커지던 시기라 다양한 개성과 콘셉트의 그룹이 대거 등장했다"면서 "덜 유명했더라도 충분한 실력과 매력을 갖춘 팀들도 꽤 됐다. 최근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 4세대 그룹들이 경쟁력을 위해 2세대 그룹을 공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아이유, '골든디스크' 음원대상... "진심 담은 음악 들려주겠다"

올해 새 음반이 정규로 나올 예정

가수 아이유가 '제35회 골든디스크어워즈 with 뉴라프록스' 첫날 주인공이 됐다. 아이유는 9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킨텍스에서 언택트로 열린 시상식에서 디지털음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지난해 EP '러브 포엠(Love Poem)'과 싱글 '에잇'(Eight)을 통해 팬들과 만났던 그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불루밍을 꾸준히 사랑해준リスナー분들에게 감사하다.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공연계에도 응원과 위로의 말씀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새 음반이 정규로 나올 예정이다. 마음이 지친 분들에게 진심을 담은 음악을 들려주겠다"며 "1곡 정도는 1월 중에 들려줄 수 있을 것 같다. 경쾌하고 힘을 줄 수 있는 음악이다"고 귀띔했다. 이날 디지털음원 부문 분상은 아이유를 비롯해 방탄소년단·있지·노을·지코·레드벨벳·블랙핑크·화사·오마이걸·마마무 등 총 10팀



이 가져갔다. 트렌드 오브 더 이어는 지코, 골든 초이스는 뉴이스트가 차지했다. 이와 함께 베스트 그룹상은 몬스타엑스, 베스트 솔로 아티스트상은 제시, 베스트 R&B 힙합상은 창모, 베스트 발라드상은 이승기, 베

스트 트로트상은 임영웅에게 돌아갔다. 베스트 제너레이션상은 더보이즈, 이달의 소녀가 받았다. 이날 시상식 사회는 이승기와 배우 박소담이 맡았다.

'트로트의 민족' 안성준 우승...14.4%로 종영

금요 예능 시청률 1위

MBC TV '트로트의 민족'이 안성준의 '뉴 트로트 가왕' 등극과 함께 최고 시청률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8일 오후 8시45분 생방송으로 펼쳐진 '트로트의 민족'은 닐슨코리아 집계 결과 14.4%의 시청률(2부)을 기록해 금요 예능 시청률 1위에 올랐다. 분당 최고 시청률은 16.4%까지 치솟았으며, 안성준이 '뉴 트로트 가왕'에 등극하는 장면이 최고의 1분을 차지했다.

이날 결승전에서 안성준은 김소연, 김재룡, 더블레스를 꺾고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MVP 3관왕으로 파죽지세를 이어온 그는 '뉴 트로트 가왕'에 등극, 이번 없이 최고의 자리에 우뚝 섰다. 우승자 호명 직후 안성준은 눈물을 펄펄 흘리며 "톱4가 다 같이 우승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열심히 음악해서 즐거운 무대 보여드리고 싶다"며 우승 소감을 밝혔다. 안성준은 1억원의 상금에 음원 발매 기회, 전국 투어 콘서트 등의 우승 특전을 거머쥐게



됐다. 6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유종의 미를 거둔 '트로트의 민족'은 최후의 8팀과 함께 다음 달 설 특집으로 시청자들을 다시 만날 예정이다.

김수민 아나운서 '펜트하우스2' 스포 의혹...무슨 내용?

김수민 SBS 아나운서가 '펜트하우스' 시즌 2 스포일러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김수민 아나운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브이로그를 공개했다. 브이로그에는 김수민 아나운서가 대사 연습을 하는 과정이 담겼다. 빨리 감기로 대사는 들리지 않았으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김

수민 아나운서가 연습한 내용이 SBS TV 드라마 '펜트하우스' 시즌 2의 내용을 스포일러하는 내용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 누리꾼은 김수민의 연습 영상을 느린 배속으로 바꾼 뒤 대사를 받아 적었다며 극중 주단체(엄기준 분)와 전서진(김소연)이 약혼을 발표했고 시즌 1에서 심수련(이지아)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던 오윤희(유진)가

모든 죄를 자수를 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관련 글이 트위터 등 SNS를 통해 퍼지며 논란은 확산됐고, 해당 내용을 모두 받아 적은 스크립트까지 등장했다. 논란이 일자 김 아나운서는 해당 영상을 포함한 유튜브 채널의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개인 SNS를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했다.



현빈♥손예진, '사랑의 불시착' 넷플릭스 역주행

종영된지 1년여가 되어가지만 TOP 10위 내에 안착 '눈길'

배우 현빈과 손예진이 새해에 열애를 공식 인정하면서 두 사람이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인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재조명 받고 있다.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은 지난 8일 기준 넷플릭스에서 한국 TOP 10 콘텐츠 중 4위에 이름을 올렸다.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은 지난 2019년 12월14일에 첫 방송돼 지난해 2월 16일에 21.7%(닐슨코리아 기준)의 높은 시청률로 막을 내렸다. 종영된지 1년여가 되어가지만, 국내 넷플릭스 TOP 10위 내에 안착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현빈과 손예진이 열애 사실을 인정하면서, 두 사람이 함께 출연한 '사랑의 불시착'도 다시 관심을 받게 된 것이다. '사랑의 불시착'은 최근에는 국내 넷플릭스 TOP 10 콘텐츠 밖에 있었지만, 열애 소식과 함께 다시 진입하면서 순위도 점점 올라가고 있다. tvN도 현재 '사랑의 불시착'을 다시 편성해 방송하고 있다. 앞서 '사랑의 불시착'은 넷플릭스를 통해 190여개국에 공개되면서 일본, 대만, 태국 등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말 일본 넷플릭스가 발표한 '2020년 가장 화제가 된 작품 TOP 10' 중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AC(Assian Academy Creative Awards)에서는 '최고의 드라마 시리즈' 부문 수상을 했다. 특히 '사랑의 불시착'은 일본에서 한류 열풍을 재점화했다는 평을 받는 등 흥행

했고 현재도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현빈과 손예진의 열애 소식에 일본 언론들도 일제히 주목하며 보도했고, 일본 팬들의 축하 댓글도 이어졌다. 또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8일부터 오는 2월27일까지 도쿄 하라주쿠에서 '사랑의 불시착' 전시회가 진행된다. '사랑의 불시착' 극 중 장면을 재현하는 등 450여개가 넘는 소품과 사진 등을 활용한 전시회다. 이후 오사카, 후쿠오카, 나고야에서도 열릴 예정이다. '사랑의 불시착'은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북한에 불시착한 재벌 상속녀 '윤세리'(손예진)와 그녀를 지키기 사랑에 빠진 장교 '김정혁'(현빈)의 로맨스 드라마다. 현빈과 손예진은 극 중 이름을 딴 '둘리 커플'로 불리며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동갑내기 톱스타 현빈과 손예진은 지난 2018년 영화 '협상'으로 처음 호흡을 맞췄고, '사랑의 불시착'이 두 번째 만남이다. 이들은 지난 2019년 LA의 한 마트에서 모습이 포착되면서 열애설이 터졌다. 또 '사랑의 불시착' 출연 당시에도 열애설에 결혼설, 결별설까지 각종 소문에 휩싸였다. 하지만 당시 양측 소속사는 열애설 등 소문을 모두 부인했다. 두 사람은 '사랑의 불시착' 이후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소속사는 "두 배우는 작품을 통해 진분을 쌓아왔고 드라마 종영 이후 서로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다"며 따뜻한 응원을 부탁했다. 손예진도 자신의 SNS를 통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예쁘게 잘 가꿔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